

가계부채·환율 등 인상 요인에도 경기 불안에 금리 동결

한은 기준금리 3.5% 유지

한국은행이 19일 기준금리를 또다시 동결했다. 기준금리는 지난 2·4·5·7·8월에 이어 다시 3.50%에 묶였다.

가계부채가 빠르게 늘고 원달러 환율도 11개월 만에 최고 수준에 이르는 등 금리 인상 요인이 분명히 있지만, 최근 소비 부진과 중국 등 주요국의 성장 둔화로 뚜렷한 경기 회복을 장담할 수 없는 만큼 일단 동결한 뒤 상황을 지켜보자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지난달 20일(현지시간)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직후 고조된 미국의 추가 통화 긴축 압력이 최근 다소 줄어든 점도 한은의 통화정책 결정에 여유를 줬다.

만약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이미 너무 많이 떨어진 미국 장기 채권 금리, 근원 소비자물가(에너지·식품 제외) 상승을 하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사태에 따른 경기 불안 등을 고려해 연내 0.25%포인트 추가 인상에 나서지 않으면, 당분간 한국과 미

지정학적 위험·주요국 긴축 장기화...미국 추가 인상 압박도 줄어

소비·수출입·투자 등 전 부문 부진...내년 상반기까지 '동결 모드'

국 간 금리 격차가 2.0%포인트로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기준금리(연 3.50%)를 조정 없이 동결했다.

앞서 2020년 3월 16일 금통위는 코로나19 충격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0%포인트 낮추는 이른바 '빅컷'(1.25→0.75%)에 나섰고, 같은 해 5월 28일 추가 인하(0.75→0.50%)를 통해 2개월 만에 0.75%포인트나 금리를 빠르게 내렸다.

이후 무려 아홉 번의 동결을 거쳐 2021년 8월 26일 마침내 15개월 만에 0.25%포인트 올리면서 이른바 '통화정책 정상화'에 나섰다.

그 뒤로 기준금리는 같은 해 11월, 지난해 1·4·5·7·8·10·11월과 올해 1월까지 0.25%포인트씩 여덟 차례, 0.50%포인트 두 차례 등 모두 3.00%포인트 높아졌다.

하지만 금리 인상 기조는 사실상 지난 2월 동결로 깨졌고, 3.5% 기준금리가 이날까지 약 9개월째 유지되고 있다.

이날 한은이 6연속 동결을 결정한 가장 중요한 배경은 역시 불안한 경기 상황이다.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전 분기 대비 0.6%)은 1분기(0.3%)보다 높지만, 세부적으로는 민간소비(-0.1%)를 비롯해 수출·수입, 투자, 정부소비 등 모든 부문이 뒷걸음쳤다.

다만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크게 줄어 순수출(수출

-수입)만 늘면서 수치상으로는 겨우 역(-)성장을 피했다.

8월 산업활동동향 통계에서도 소매판매액지수는 내구재·준내구재 소비 부진과 함께 전월 대비 두 달 연속 떨어졌다.

그렇다고 가라앉은 경기에만 조정을 맞춰 한은이 기준금리를 서둘러 낮추기에는 가계부채·환율·물가 등이 걱정거리다.

은행권과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지난달 각 4조9000억원, 2조4000억원 또 늘어 4월 이후 6개월째 증가세를 유지했다.

미국(5.25~5.50%)과의 기준금리 역전 폭이 사상 초유의 2.0%포인트까지 커진 가운데 이달 초 환율은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1363.5원까지 뛰었다.

외국인 증권(주식+채권) 투자자금도 8월과 9월 두 달 사이 31억달러 이상 순수출됐다.

원론적으로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가 아닌 원화 입장에서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크게 낮아지면, 더 높은 수익률을 쫓아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

고 원화 가치가 떨어질 위험이 커진다.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 동월 대비 3.7%)의 경우 한은의 전망 경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등으로 유가가 들쭉날쭉인 경우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불씨도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

조영무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금통위 동결 결정에 앞서 "미국·중국 등 주요국 경기 둔화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한은이 금리를 올려 경기를 위축시키기 어렵다"며 "그렇다고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까지 겹쳐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는데 금리를 낮추기도 힘들다. 금리를 올리기도 내리기도 어려운 상황이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대체로 전문가들은 한은의 딜레마와 동결 기조가 내년 초까지 이어지고, 내년 2분기 이후에나 미국의 피벗(통화정책 방향 전환)과 함께 한은도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위니아전자 회생절차 개시 결정

광주시 "다른 계열사도 회생절차 개시" 호소... 강기정 시장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 검토를"

대우전자에 뿌리를 둔 가전기업 위니아전자(옛 위니아대우)가 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안병욱·이동식·이상훈 부장판사)는 19일 위니아전자에 대한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운석 위니아전자 전무가 법정상 관리인(채무자의 대표자)으로 지정됐다.

법원은 이날부터 다음달 2일까지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목록을 제출받은 뒤 다음달 3일부터 16일까지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식을 신고 받을 예정이다.

이어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조사를 거쳐 내년 1월 11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받고, 이를 인가할지 검토하게 된다. 위니아전자의 뿌리는 대우전자로,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대

우그룹이 해체되면서 2018년 대우위니아그룹에 인수됐다. 하지만, 위니아전자는 좀처럼 부진을 벗어나지 못했고 코로나19 사태로 중국 공장이 셧다운되면서 경영상황이 악화됐다.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이사는 수백억원대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로 지난 9월 검찰에 구속됐다.

한편, 광주시는 이날 위니아전자 등에 대한 법원의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 경제·산업계와 함께 위니아, 대우플러스 등 대우위니아그룹 다른 계열사에도 조속히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이뤄지도록 법원에 호소할 예정이다.

그동안 광주시와 광주상공회의소, 광주경영자총협회, 산학연협의회 등은 탄원서 제출, 호소문 발표

등으로 신속한 회생절차 개시를 촉구해왔다. 광주시는 유관 기관들과 함께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협력업체의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피해 업체에는 중소기업 특별회계자금 50억원, 신용보증재단 특별 보증 50억원을 우선 활용하기로 했다.

지방세 납부 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니 정부가 나서 줄 때"라며 "중소벤처기업부에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을 요청한 데 이어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 상황이 심각해지면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까지 검토해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권원 기자 cki@kwangju.co.kr



광주은행, 전국체전서 '보이스피싱' 예방 캠페인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19일 목포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과 전국 장애인체전 기간 '불법사금융 및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합동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광주은행은 개최시 당일 목포종합운동장 인근에서 방문객과 체전 참가자를 대상으로 가드캠페인을 실시했으며,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시 즉시 대응조치, 불법사금융 피해유형 및 대응요령을 담은 홍보물을 전달했다. 또 금융감독원 광주전남지원과 함께 목포종합경기장 내에 홍보부스를 열고 금융사기 관련 상담, 피해구제 방법 및 금융사별 지원제도 등을 안내하고 있다.

정장주 광주은행 금융소비자보호총책임자(CCO)는 "이번 합동 보이스피싱예방 캠페인을 통해 낯이 고도화되고 있는 보이스피싱에 대한 지역민의 관심이 제고되길 바란다"며 "광주은행은 FDS(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 운영을 통해 피해사례를 분석 및 사전 모니터링에 반영해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전세보증 전세가율 기준 하향, 서민에겐 '독'

2025년 전세보증 대위변제금 1조5063억으로 감소

조오섭 의원 "주택도시보증기금, 자구노력 선행해야"

주택도시보증기금(HUG)이 전세보증 전세가율 기준을 하향하면서 오는 2025년 전세보증 대위변제금이 1조5063억원 감소하지만 상대적으로 서민들의 고통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북구갑) 국회의원이 19일 HUG 등에서 제출받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현황 분석 보고'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세보증 대위변제금액은 2023년 3조7861억원, 2024년 3조5718억원, 2025년 2조655억원 등 총10조원에 달한다.

HUG는 2025년 대위변제금액을 전년 대비 42.2% 감소한 1조5063억원으로 예측했다. 이는 100%였던 전세가율(부채비율)을 90%로 하향했기 때문이다.

실제, HUG는 보고서에서 "전세가율(부채비율) 하향 대책(100%→90%)으로 인한 발급감소 효과를 25년 하반기부터 반영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로 인해 부채비율 90~100%구간의 만기도래 금액은 2024년 11조8214억원, 2025년 4조3354억원으로 전년 대비 63.3%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기도래 금액 감소는 그만큼 전세보증보험 발급이 제한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마냥 반길 수만은 없는 대목이다.

HUG의 전세보증보험 거절전수도 2021년 2002건, 2022년 2351건, 2023년 9월 기준 1873건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90~100%구간의 전세피해자와 보증보험가입 거절 등 보증보험 사각지대에 대한 농민 서민들에 대한 대책이 시급해 보인다.

HUG의 전전세 제고를 서민들의 희생은 강요하면서 자구노력을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HUG의 올해 2분기 악성 임대인(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의 대위변제금액은 1조4665억원(7202건)으로 1분기 1조2274억원(5954건)보다 2391억원이 증가했다. 올해 2분기 악성임대인 상위 10위 대위변제금액은 5297억원(2535건)으로 1분기 4810억원(2240건)보다 487억원이 증가했다.

HUG가 악성임대인 대위변제금액 회수를 위해 채권회수전담반 운영 등 채권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효과는 미흡하다.

조오섭 의원은 "HUG가 전세가율 하향, 공시가 격 적용비율 하향 등 서민의 삶에 고려하지 않고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재정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며 "국민의 주거안정을 책임지는 기관으로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러쉬로 힐링하세요 광주시세계 러쉬(LUSH) 매장 직원이 다양한 입목제를 선보이고 있다. 최근 리뉴얼을 마친 본관 4층 러쉬 매장은 비누와 입목제, 스크럽 등 바디케어 제품과 헤어제품, 스프레이, 퍼퓸까지 다양한 제품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다. 러쉬 매장에서는 재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샷과 로즈우드 오일을 첨가한 '차콜' 고체비누를 증정한다.

<광주시세계 제공>

"산업부, 한전공대 총장 해임 건의는 위법"

김회재 의원, 한전 국감서 지적

19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국전력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산자부가 윤의준 한국에너지공단 총장 해임 건의한 것을 두고 위법이며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산업부는 법적 근거도 없이 윤 총장을 해임 건의했다"고 꼬집었다.

또 "개교한지 얼마 안된 학교의 가장 책임이 중대한 분을 해임해야 한다고 몰아가는 건 전 정부의 정책 흔들기"라고 덧붙였다.

윤 총장은 이날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임 정도 처분을 받으려면 개인의 형사적 비리

등이 드러나야 한다. 해임될만한 그 정도의 잘못을 저질렀다고 생각하느냐'는 김회재 의원 질의에 "에너지공대와 관련해 뇌물수수, 청탁 등 해임될 만한 중대 범죄 행위는 없었다"고 말했다.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총장 해임 건의는 호남 현대의 연장선"이라며 산업통상자원부가 윤의준 한국에너지공단 총장 해임 건의를 철회해달라는 윤 총장 측 요구를 심의 끝에 기각한 것을 두고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모독"이라고 주장했다.

같은당 김한정 의원은 "해임건의안 내용이 부실할 뿐만 아니라, 의무 규정도 없는 사안을 두고 총장 해임을 결정 통보했다"며 "과학자 교육자 연구자에 대한 정부의 태도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이마트 '반값 킹크랩' 맛보세요

20~21일 100g 당 5천원대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 불경기 등의 여파로 한국이 때어난 '킹크랩 특수'를 누리고 있다.

이마트는 20~21일 이틀간 러시아산 레드 킹크랩을 100g당 5000원대에 판매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달 이마트 킹크랩 평균 판매가가 100g당 1만원대이던 점을 고려하면 거의 반값이다.

이마트는 맛 좋기로 유명한 레드 킹크랩 중에서도 살아 틈살해 '골든 사이즈'로 불리는 1.5kg 이상 상품으로만 엄선했다.

입항부터 계류, 판매까지 모두 활(活) 물류만을 이용해 가장 신선한 상태로 고객에게 전달된다고 이마트는 설명했다.

이마트가 최고급 수산물의 대명사인 킹크랩을 이처럼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게 된 것은 우크라이나

전장으로 러시아산 킹크랩의 미국과 유럽 수출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미국과 유럽 수출 물량의 상당수가 한국으로 방향을 틀면서 가격을 끌어내렸다는 분석이다. 중국의 경기침체 여파로 최대 명절인 '중추절' 킹크랩 수요가 급감한 것도 한 원인으로 꼽힌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415.80(-46.80)
↓ 코스닥	784.04(-24.85)
↑ 금리(국고채 3년)	4.080(+0.049)
↑ 환율(USD)	1357.40(+7.80)